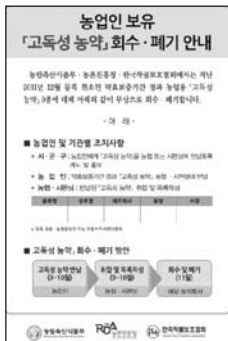


작물보호협회, 유효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일선 농협·시판상에 반납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된 약효보증기간 경과 일부 농업용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극 나선다.

작물보호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 보유 유효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및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일선 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및 농약시판상에 계도 홍보를 위한 전단지 배부,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토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회수·폐기 계획은 최근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업계의 저독성 농약 보급 추세 및 올바른 인식 제고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 시행하기로 한 계획에 따르면 일선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구입 또는 사용 후 남은 유효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을 잘 밀봉하여 가까운 지역 농협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 반납하고, 지역 농협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서는 동 기간 동안 반납된 농약의 목록을 작성, 취합·보관하게 되며, 해당농약 제조업체는 11월 중 이를 일괄 수거하여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작물보호협회, 대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 집중 실시

8. 13일 인천 및 경기지역서, 농업대학 및 작목반 대상 안전사용 강의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지난 8월 13일 강화 및 여주, 이천 등 인천·경기지역 3곳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 지역 농업대학원 및 작목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법」 강의를 집중 실시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지역 농업대학원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문 강의를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농업대학원에 다니는 농업인이니 만큼 학구열이 높아 강의를 끝난 뒤에도 작물보호제(농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질의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브로코리 및 배추 재배농가로 이루어진 산북면 상품원예작목반 20여명 대상 ‘올바른 작물보호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품질자연관에서 진행하였고,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호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호법 화훼작목반 교육은 작목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영농기임을 감안,

저녁 8시부터 진행되어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날 정도로 작목반원들의 작물보호제(농약)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에 사는 길봉섭씨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용법과 기준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민이 전혀 모르는데 처음 접한 저항성 해소를 위한 ‘약제 작용기구 표시제도’를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협케미컬,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운 씨 취임

7. 11 대전 물류센터서,
‘농업인 중심 경영 실현’다짐



농협케미컬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운(60) 전 NH농협은행 부행장이 지난 7월 11일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물류센터에서 취임했다.

이번에 취임한 신임 김종운 대표이사는 1975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유통 전주유통센터장, 전북지역본부장, NH농협은행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농협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협의 자회사로서 농협케미컬의 이미지가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수 작물보호제 개발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상 농업인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하고 농업인 중심 경영과 지속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농협케미컬, 비선택성제초제 「푸레스타」 몽골 수출

8. 5 MOU 체결,
지속적인 작물보호제 수출 위한 발판 마련



농협케미컬(대표이사 김종운)이 몽골 MSM (Mongolian Star Melchers) Industrial과 50만불 규모의 비선택성제초제 「푸레스타 액상수화제」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본격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농협케미컬은 지난 8월 5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MSM본사를 방문하여 농협케미컬과 MSM, BASF와의 지속적인 푸레스타 수출 및 신규 작물보호제 수출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고 몽골 재배현황에 맞는 제품 논의 및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 등을 협의하고 몽골 내 푸레스타 사용 농가를 방문해 현지 반응을 살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50만불 규모의 비선택성제초제 「푸레스타 액상수화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몽골 현지로 납품을 완료한 농협케미컬은 이번 MOU체결로 지속적인 업무협약과 제품에 대한 몽골 시장반응을 파악, 원제 공급사인 BASF와의 공동 판촉을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케미컬 김무정 상무는 “앞으로도 더욱 연구개발

에 투자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간편하고 효과 좋은 생력화 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비선택성 제초제인 ‘푸레스타’는 독일 BASF가 개발한 신규물질 ‘킵소’의 사플루페나실 성분과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약제로 중국, 일본, 인도 등 해외에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잡초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약제 살포 2~3일 후부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약효지속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푸레스타를 수입하는 MSM은 100% 몽골 정부 투자회사로 산업자재, 자동차 부품, 광산채굴 기계, 농업용 기계 및 자재와 무역 상사 업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동부팜한농, 강원도서 「배추 병해충 방제교육」 실시

8. 11 강원도 삼척시서, 신제품 ‘베리마크·후론사이드플러스’ 관심



동부팜한농(대표이사 박광호)이 지난 8월 11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배추 병해충 방제교육」을 실시했다.

동부팜한농은 이번 교육에서 최근 배추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혹병, 진딧물, 벼룩잎벌레 등의 발생원인과 생태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 배추 재배에 적합한 토양 및 영양 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제품인 ‘베

리마크’와 ‘후론사이드플러스’의 사용방법, 방제효과 등에 대해 참가자들의 갖가지 질문이 이어져 높은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동부팜한농이 지난해 출시한 원예용 육묘상 전용 처리제인 ‘베리마크 액상수화제’는 정식 전 육묘상 관주 처리 1회로 진딧물, 벼룩잎벌레, 나방 등 초기해충을 간편하게 방제한다. 약효가 오래 지속돼 재배 중기까지 해충밀도를 낮춰 재배기간 중의 총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다. 배추의 무테두리진딧물, 벼룩잎벌레, 배추좀나방을 비롯해 고추의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오이의 아메리카잎굴파리 등에 등록됐다.

저항성 뿌리혹병 전문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후론사이드플러스 분제’는 뿌리혹병 전문약으로 명성 높은 ‘후론사이드’의 우수한 약효에 편리성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10a당 처리약량을 20kg로 줄여 살포, 운반 과정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정식 전 1회 토양혼화처리로 배추 뿌리혹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배추 주요병해충 방제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인 동부팜한농은 9월 초순까지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등에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부팜한농, 시설재배 농가 대상 세미나 실시

8. 26 - 8. 28 경남지역서, 시설하우스 재배에 유용한 ‘베리마크’ 설명

동부팜한농(대표이사 박광호)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경상남도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베리마크 액상수화제’의 기술세미나와 대규모 집중판촉을 실시했다.

동부팜한농은 부산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에서



토마토, 시설고추, 착색단고추, 오이 등 시설재배 농가를 초청해 '시설 과채류 해충방제 교육' 세미나를 5회 개최하고 주요 작목반, 대농가, 육묘장 50개소를 찾아가는 순방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동부팜한농은 최근 문제되는 시설작물의 주요해충 현황과 베리마크를 활용한 방제요령을 설명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비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베리마크는 토마토, 오이의 아메리카잎굴파리, 착색단고추의 담배거세미나방 등 시설작물 초기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시설 양액·점적재배 관수전용 살충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액재배 농가는 "그동안 사용해온 기존 살충제와 달리 베리마크는 꿀벌독성이 매우 낮아서 작물 재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시설작물의 주요해충과 효율적인 방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바이엘, 세계 식량문제 해결 위한 「2015 유스 애그서밋」 개최

8. 27 - 8. 27 호주 캔버라서,
'굶주린 지구 위한 노력' 주제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가 미래 농업인 네트워크(Future Farmers Network)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호주 캔버라에서 「2015 유스 애그서밋(Youth Ag-Summit)」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유스 애그서밋은 전 세계 33개국의 18세-25세 사이의 청년 리더 100명이 모여 식



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및 현대 농업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굶주린 지구를 위한 노력(How to feed a hungry planet)"이며, 참가자들은 식량 안보를 주제로 에세이를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각 국가의 대표들이다.

서밋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농업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참여 및 토론, 현지 농장 견학 등을 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 나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농업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박민원 연구원이 멘토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 대표로 함께 참석한 김민우 학생(2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학부 때부터 수자원, 식량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다"고 말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식량 문제에 대한 미래방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서밋에서 채택되는 "캔버라 유스 애그 선언문"은 현대 농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는 UN 식량안보 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UN 식량안보 위원회에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민간 부문 회원으로 참가해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다.

신젠타, 우수 영농인 현장교육 통한 솔루션 소개

8. 6 전남도 농업기술원서,
조생벼·이모작 재배 농업인 대상



신젠타코리아(대표이사 안병욱)는 지난 8월 6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조식재배 및 이모작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 영농인 현장 교육」을 갖고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5년부터 작물별 병해충 방제는 물론 생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농업인 및 농약 시판상에 직접 소개하고 경험을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우수 영농인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신젠타는 이미 글로벌 프로젝트로 신흥 성장국가인 아시아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 및 농약 시판상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벼 재배에 있어 모판에 단 한번 관주처리로 수확기까지 벼 병해충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통합작물솔루션으로서 「그로모어 : GroMore-조생벼·이모작 재배 농업인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 본격적인 농가 소개를 앞두고 주요 벼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동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벼 재배 지역 내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그로모어 솔루션은 최근 농가 노동력 절감, 작물보호제/비료 등 투입 비용 최소화 등 벼 재배

농업인의 고충 해결에 초점을 두고, 파종부터 이앙 당 일까지의 육묘기간 중 최적화된 작물보호제 및 작물활성제 프로그램 적용만으로 이앙 후, 벼의 생육 증진은 물론 출수기 전·후 병해충까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젠타 코리아는 향후 「그로모어 : GroMore-조생벼·이모작 재배 농업인을 위한 솔루션」의 확대를 위해 이 같은 현장 세미나 활동은 물론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와도 시범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환 前신젠타코리아 대표이사, 제주대 석좌교수로

8. 20 생명공학부서,
농산업분야 차세대 리더 육성에 기여



신젠타 코리아(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농약과학회 수석부회장인 김용환 박사가 제주대 석좌교수로 초빙된다.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지난 8월 20일 국내외 작물보호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탁월한 김 박사를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빙교수로 임명된 김 박사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아열대 농생명융복합 산업인재 양성사업단(단장 이동선)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人事 [동방아그로] △ 예산지점장 구건희